

탄소국가산단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훈풍’

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전북연구개발특구, 탄소국가산단 입주희망기업 9곳과 투자협약 체결

이달 말 본격적인 분양을 앞둔 전주 탄소국가산단단지(9개 기업) 추가 입주하기로 약속하면서 강한 경제 전주 구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24일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따르면 이날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입주희망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국가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9개 기업과 77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참여한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부터 첨단소재를 아우르는 익성(대표 이봉직) △선박 조항장치 부품 국산화를 선도하는 프리테크 엔아이(대표 김일택영) △나노소재의 한 축인 탄소나노튜브 합성기술 개발·생산 전문기업인 나노솔루션(대표 김형열) △초고온 탄소 내열 복합소재부품 전문기업인 데코카본(대표 김광수, 신현규)이 참여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 분야 특화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인 에스엔전자(대표 정준호)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고상수 전해 전해 집막을 개발하는 예코웬(대표 박인유) △국내외 특허 34건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시스템 전문기업인 인제이엔지(대표 박종우) △소형 전기이동충전센터 조립 장비의 국산화 대표기업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개발특구는 2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입주희망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국가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9개 기업과 77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인 팔복인더스트리(대표 김두용) △액화가스 금속탱크 전문기업인 하이슬(대표 이상용)이 동참했다.

이들 기업은 탄소국가산단의 기반시설이 완성되는 오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총 773억 원을 투입해 공장 등 생산시설을 짓기로 한 가운데 이를 통해 총 226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투자협약은 탄소국가산단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체결한 세 번째 투자협약으로, 이로써 투자기업은 22개 기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22개 기업은 앞으로 총 2,371억 원을 투자해 560명 규모의 고용 창출

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훈풍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본격적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해 2월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한도를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탄소국가산단에 분양가의 10%의 입지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조례 역시 개정하는 등 탄소국가산단의 매력력을 적극 홍보해왔다.

뿐만 아니라 전주 제1·2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전주지역 5개 산단이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지구'로 선정돼 앞으로 총 305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 입주기업들의 안전성 강화와 물류비 절감, 인력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업 한 곳 한 곳이 전주의 미래이며, 본격적인 기업유치만이 전주를 강한 경제로 이끄는 지름길일 것"이라며 "분양을 앞둔 탄소국가산단과 더불어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인 신규 산업단지도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24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내빈, 주민단체,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음식 나눔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한 '전주 함께주방' 사업의 1호점인 노송동 천사마을점 개소식을 가졌다.

‘전주 함께주방’ 1호점 탄생

시, ‘음식 나눔 공간 조성’ 노송동 천사마을점 개소

해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가면서 '천사마을'로 불리고 있는 전주시 노송동에 누구나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고, 맛 볼 수 있는 전주지역 첫 번째 '함께주방'이 탄생했다.

전주시는 24일 노송동 천사마을 희망문화센터 4층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내빈, 주민단체,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음식 나눔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한 '전주 함께주방' 사업의 1호점인 노송동 천사마을점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 사업 경과보고와 축하행사(떡 케이크 커피식 등), 2부 노송동 통장협의회에서 마련한 함께 음식 나눔 행사 등으

로 꾸며졌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서는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 등 150여 명에게 중식을 대접하며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돼 '전주 함께주방'의 출발을 기념했다.

전주 함께주방 1호인 천사마을점은 지역 내 숙원사업이었던 소의 계층을 위한 음식 나눔 조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협소하고 설비 부족으로 활용이 어려웠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탄생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 공간은 '얼굴 없는 천사'의 나눔 정신을 계승해 소의계층 나눔과 청소년, 지역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주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송천2동 자율방재단, 무더위 쉼터 지정 경로당 안전점검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자율방재단(단장 정순우)은 지난 23일부터 회원 7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서기 대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자율방재단은 폭염 시 행동 요령, 냉방기 점검, 야외활동 자제, 냉방병 예방 방법 홍보 등을 실시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순우 송천2동 자율방재단장은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온혜정 전주시의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전주시의회 온혜정 의원(우아1·2, 호성동)이 2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온 의원은 다음 참여자로 이국 전주시의원과 김용식 전주호성신협 이사를

지목했다.

온 의원은 "인구문제는 통계 속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현실적인 문제다"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고 청년과 어르신 모두가 살고 싶은 전주를 만드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



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신유정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전주시의회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신유정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이동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적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운영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추진 △위탁 및 재경 지원 등이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하절기 축·수산물 위생점검 강화

전주농기센터, 선제적 식중독 예방조치 나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한 축산물 부패·변질과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 하절기 축·수산물 영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주지역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취약 분야 및 축산물 이력제 관리 부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학교급식·군납 납품업체 △최근 1년간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 업체를 비롯한 이력 관리 위반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의 위생 기준(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 △

축산물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 소고기 이력제 및 원산지 표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가 적발되면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시는 축산물 점검과 더불어 전주지역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이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와 올해 주요 위반 사례로 총 13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원산지 표시 5건 △축산물 이력제 거짓 표시 4건 △자제 위생 관리 기준 미준수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